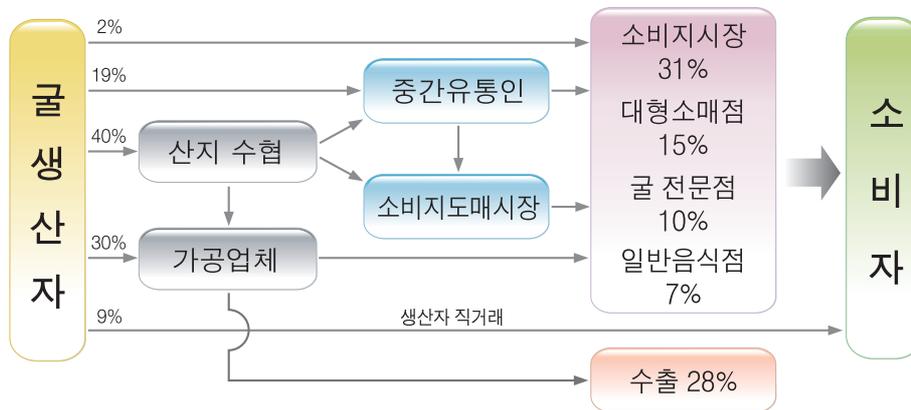


이 번 FOCUS는 굴의 유통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굴의 주요 유통경로, 산지 수협이나 가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져

- 굴의 국내 유통경로는 주로 산지 위판장을 거친 후 중간 유통인을 통해 소비지시장이나 대형소매점으로 유통되는 경우와 가공업체를 통해 봉지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은 대부분 가공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며, 냉동굴이나 통조림 등의 형태로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25개국으로 수출된다.

〈굴의 주요 유통경로〉



주: 1) 굴은 일부 각굴로 소비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굴형태로 유통되거나 냉동굴, 통조림 또는 마른 굴로 가공되어 소비됨. 특히 냉동굴, 통조림, 마른굴은 대부분 수출되고 있음

2) '소비지 도매시장'은 굴을 경매하는 노량진, 가락 및 구리시장 등의 도매시장을 말하며, '소비지 시장'은 굴 경매를 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정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이 포함되어 있음

● 굴 제품별 유통비중, 생굴은 증가한 반면 가공굴은 감소

- 굴의 제품형태별 유통비중을 조사한 결과, 생굴은 증가하는 반면 가공굴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수출용으로 유통되던 가공굴이 최근 굴 수출이 부진해짐에 따라 가공굴의 비중도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 한편 수출용 생굴은 가공굴과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내에서의 생굴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형소매점을 중심으로 한 봉지굴 수요증가와 굴 국밥집 등 굴 전문점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생굴과 가공굴의 유통 비중 변화〉

(단위 : %)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생 굴	44.4(17.3)	49.8(-)	55.0(7.6)	60.3(-)	66.1(4.6)	66.2(3.5)
가공굴	55.6	50.2	45.0	39.7	39.9	33.8

주 : () 안의 비율은 전체 유통량에 대한 수출용 생굴의 비중을 말하며, '-'는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 굴수하식수협

집필진

강종호(총괄), 옥영수(생산·가격전망), 박광서(생산·수출입), 이남수(가격·Focus), 백은영(일본)

굴

수산물관측

2007년 11월호

통권 제88호 2007년 11월 5일 발행 등록번호 서울 라09578 ISSN 1739-5283 발행·편집인/ 이 정 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쇄/ 서울기획문화사
주소/ 137-06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옥스포드 하우스 3F TEL. (02)2105-4920~9 FAX. (02)2105-4939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서는 수산물의 생산, 가격, 수출입 등 수산물 전반의 수급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매월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관측정보 및 수산업관측사업에 대한 설명은 홈페이지(<http://www.foc.re.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굴 출하 본격화되고,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낮은 수준

11월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하나 작년 수준 하회할 듯

- 10월 굴 출하량은 2008년산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2,627톤을 기록했다. 경남 2,622톤, 충남 등 기타지역이 5톤을 출하한 가운데 전남에서는 출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10월 양성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 여수지역은 가막만 등을 중심으로 대량 폐사가 발생함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양성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월 수출량은 전월에 비해 26.5% 증가한 1,268톤을 기록하였으며, 산지가격은 최근 3년간 동월 가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 11월에는 계절적인 특성상 10월에 비해 출하량과 수출량은 증가하고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출하량과 수출량은 비슷하고 산지가격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10월 들어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된 가운데, 여수지역 양성상태는 좋지 못해

양식산 굴은 수하식(垂下式)과 투석식(投石式)으로 생산되나, 투석식은 출하량이 미미하고 시설량 파악이 곤란하여 관측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0월 굴 출하량, 2,627톤

- 10월 굴 출하량은 2008년산 굴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2,627톤을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굴의 주요 생산지인 경남이 2,622톤으로 출하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충남 등 기타지역은 5톤을 출하하였다. 전남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아 10월 출하량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였다.
- 한편 경남은 월하된 굴이 예년에 비해 많은데다 굴 가공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기초 출하를 늘림에 따라 10월 출하량이 예년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월 굴 출하 동향〉

(단위 : 톤)

구분	9월	10월	전월 대비(%)
전국	338	2,627	677.0
경남	335	2,622	682.4
전남	-	0	-
기타	3	5	71.3

주 : 1. 알굴 기준으로 10월은 잠정치임
2.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10월말 잔여시설량, 전월말 대비 6% 감소한 2,492만 연

- 10월말 현재 2008년산 수하식 굴의 잔여시설량(수하연 수 기준으로 길이는 지역마다 다름)은 전월에 비해 6.1% 감소한 2,492만 연으로 조사되었다.
- 경남에서는 주로 출하를 통해 시설량이 줄었으나, 전남에서는 태풍 등으로 시설이 파손된 것이 시설량 감소의 주요 원인이었다.

〈2008년산 굴 시설량(수하연 수) 현황〉

(단위 : 만 연)

구분	수하연 평균 길이(m)	8월말	9월말	10월말	전월 대비(%)
전국	4.0	2,694	2,654	2,492	-6.1
경남	5.1	1,624	1,600	1,457	-9.0
전남	2.6	767	751	735	-2.2
기타	1.4	303	302	300	-0.7

주 : 기타지역은 충남, 강원, 경기, 인천임

● 10월 굴 양성상태, 대체로 양호하나 전남 여수는 부진

- 경남은 일부 지역에서 빈산소수괴와 수온변화에 따른 폐사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성상태는 양호하였다.
- 충남은 성장과 비만도는 다소 부진하였지만 폐사와 병해가 없어 대체로 예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 그러나 전남 여수는 가막만 등 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량폐사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어장환경 악화로 조류소통이 잘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수지역은 2007년산에 이어 2008년산도 어기 초부터 생산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굴 양성상태〉

	지역	성장	비만도	폐사	병해	비고
통영	한산·지도·원문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인평·도산만	○	△	△	○	빈산소수괴가 일부 형성되었으나 회복 중
고성	고성·자란만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거제	거제만	○	○	△	○	빈산소수괴로 일부 폐사 있었으나 회복 중
	진해만	○	○	△	○	빈산소수괴가 일부 형성되어 있으나 예년수준 유지
남해	강진만	△	△	△	○	높은 수온과 태풍으로 폐사 있었으나 진정세
여수	가막·장수·여수만	×	○	×	○	가막만을 중심으로 폐사 및 해적생물 대량 발생
고흥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완도	-	△	△	△	○	일부 폐사 있었으나 예년수준 유지
진도	-	○	○	○	○	해황여건이 좋아 양성상태 양호
서산·태안	가로림만 등	△	△	○	○	성장과 비만도는 다소 부진하나 예년수준 유지

주 : ○는 좋음, △는 보통, ×는 나쁨

〈해황 및 기상예보〉

(기간 : 11월 1일~30일)

■ 11월의 수온전망(국립수산과학원)

- 11월 해역별 수온분포는 동해 중남부 해역 16~21℃, 남해 18~22℃, 서해 중남부 해역 17~21℃의 범위를 보이겠으며, 평년에 비해 일부 외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고온상을 보이겠다.

■ 11월의 기상전망(기상청)

- 11월 상순에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다. 중순에는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하순에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비슷하겠다.

가격동향

산지·도매가격, 작년 동월에 비해 낮은 수준

10월 산지가격, 작년 동월에 비해 낮은 수준

- 10월의 생굴 산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동월 가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생굴 가격이 낮게 형성된 것은 10월의 굴 출하량이 예년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다.
- 각 수협별로 보면,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은 작년 동월보다 21.0%가 낮은 kg당 3,144원이었으며, 고성군수협은 전월 및 작년 동월보다 각각 9.1%, 28.2% 낮은 3,006원을 기록하였다.

〈월별 생굴 산지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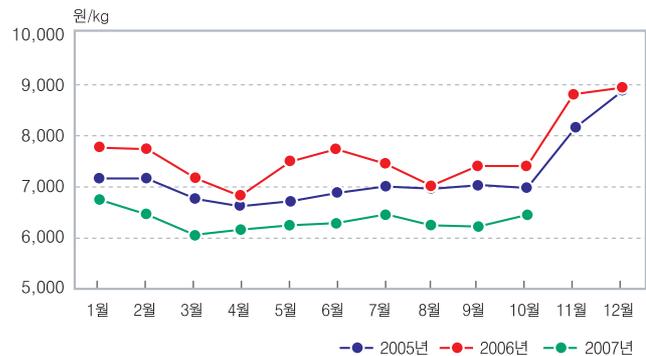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0월	9월	10월		
통영	3,981	-	3,144	-	-21.0
고성	4,187	3,305	3,006	-9.1	-28.2
여수	-	-	-	-	-

주 : '-'는 위판실적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2007년 10월은 잠정치임
 자료 : 각 수협 위판자료

도매가격, 작년보다 낮은 수준

- 10월의 농수산물유통공사 생굴 상품(上品) 도매가격은 전월에 비해 3.7% 상승한 kg당 6,516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는 10.8% 낮은 수준이었다.
- 그러나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제외한 모든 시장의 도매가격은 전월 및 작년 동월에 비해 하락하였다. 특히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상품(上品) 도매가격은 지난해보다 40.4% 낮은 kg당 4,790원이었으며, 중품(中品)은 35.1% 낮은 3,884원을 기록하였다.

〈생굴 도매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도매가격 동향〉

(단위 : 원/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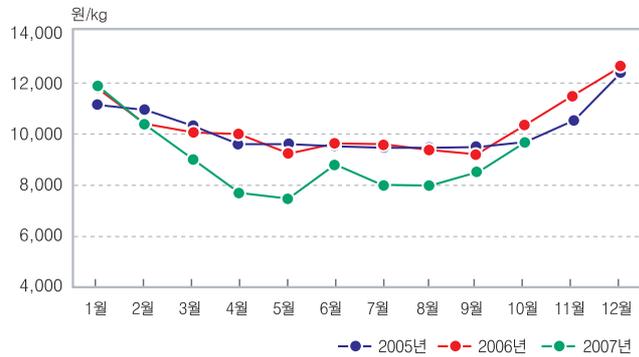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0월	9월	10월			
농수산물유통공사(상품)	7,289	6,285	6,516	3.7	-10.6	
노량진수산시장	5,175	5,208	3,675	-29.4	-29.0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상	8,033	5,189	4,790	-7.7	-40.4
	중	5,988	4,459	3,884	-12.9	-35.1

주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이며, 2007년 10월은 잠정치임

● 소비자가격, 지난달보다 올랐지만 작년 동월보다는 낮은 수준

- 최근 생굴 소비자가격은 산지 및 도매가격과는 달리 지난 8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10월의 생굴 소비자가격은 지난달에 비해 13.4% 상승한 kg 당 9,743원에 거래되었으나,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5.6%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달과 동일한 kg당 8,000원이었으며, 광주 5.5% 상승한 10,547원을 기록하였다.

〈생굴 소비자가격 추이〉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월별 생굴 소비자가격 동향〉

(단위 : 원/kg)

구 분	2006년	2007년		전월 대비(%)	작년 동월 대비(%)
	10월	9월	10월		
전 국	10,321	8,588	9,743	13.4	-5.6
서울	10,544	8,000	8,000	0.0	-24.1
부산	11,000	-	-	-	-
광주	10,000	10,000	10,547	5.5	5.5
대전	8,947	-	10,000	-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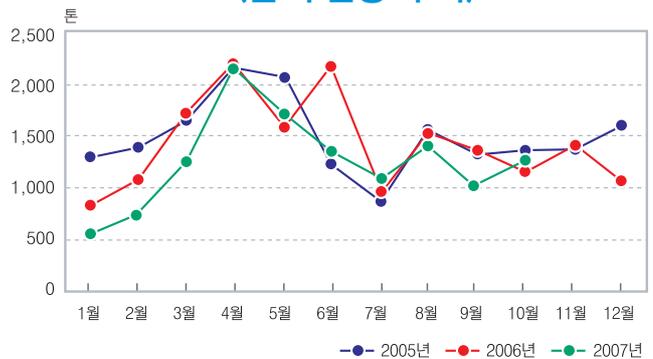
주 : '-'는 거래물량이 없어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뜻하며, 2007년 10월은 잠정치임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 동향

10월 수출량, 전월에 비해 27% 증가

- 10월 굴 수출량은 2008년산 굴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하면서 전월에 비해 26.5% 증가한 1,268톤을 기록했다.
- 제품별로는 생굴이 전월 대비 251.6% 증가한 69톤이 수출되었으며, 통조림 802톤, 마른굴 273톤, 냉동굴이 124톤을 기록했다.

〈굴 수출량 추이〉



주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수출입통계」를 바탕으로 알골로 환산하였고, 치매는 제외하였음. 2007년은 잠정치임

해외 동향

일본 2008년산 굴 출하시기, 작년보다 늦어져

- 일본 굴 주산지인 미야기(宮城)현의 2008년산 굴 첫 출하시기가 예정보다 일주일 늦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었다.
- 미야기현 어협(漁協)은 굴을 출하하기 전에 검사를 실시하는 해역을 33개소로 늘리고 검사주기를 매주로 확대하였으며, 검사결과 판명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시키는 등 위생대책을 한층 강화하였다.
- 한편 히로시마(広島)산 굴의 첫 출하도 수온이 높아 작년에 비해 4일 늦은 10월 29일부터 시작되었다.

생산 및 가격전망

11월 출하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하고, 산지가격은 전월 대비 강세이나 작년보다는 낮을 듯

11월 출하량,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일 듯

- 11월에는 계절적인 특성상 굴 출하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남 여수지역에서 대량의 폐사가 발생하여 출하량은 작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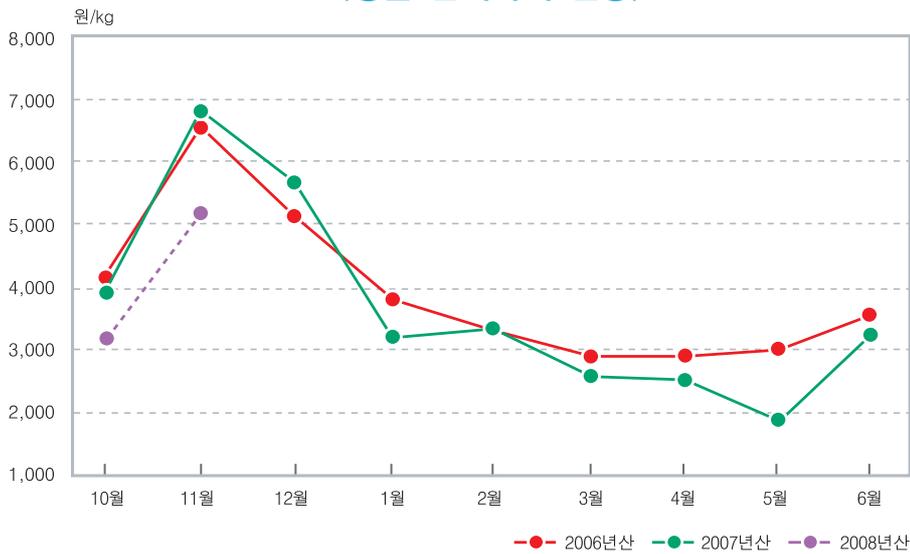
11월 수출량, 10월에 비해 소폭 증가할 듯

- 11월에는 주요 수출대상국인 일본에서도 굴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10월에 비해 수출량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소비가 예년보다 못할 것으로 보여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 생굴 산지가격, 강세 전망

- 햇굴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11월 산지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작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굴 산지가격 전망〉



주 : 2007년 11월은 전망치이고, 산지가격은 굴수하식수협 의 위판가격 기준임
 자료 : 굴수하식수협